

POLITICS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월 보증금 1만원...전남형 만원주택 진도서 첫삽

“김건희 일가 요양원 수사” 전진속 “비윤리적 이윤 추구”

더불어민주당 전진속 의원(광주 북구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친오빠와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양주 소재 ‘은 요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제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삼고 있다”며 “김건희 일가의 비윤리적, 비상식적이며 추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 요양원은 김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의소리’ 보도를 인용하며 “은 요양원은 16명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지난 2021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도 배설관리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요양원에 대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정식 접수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학대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은 요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97억원”이라며 “어르신께 마땅히 제공돼야 할 사비, 돌봄 서비스 비용이 김건희 씨의 공간을 채우는 것인지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요양시설의 학대를 방지한다면 국가는 그 존립 근거 없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을 학대한 자뿐 아니라 방조하고 묵인한 자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쟁기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우치동물원서 태어난 ‘물범’ 내달 4일까지 이름 공모전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광주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 이름 공모전을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

아기 물범은 잔잔비아물범 암컷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육사의 손에 자랐다. 사육사가 직접 이유식을 먹이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며 성장했고, 지금은 어미와 함께 살기 위해 합사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접수된 이름 가운데 3개 후보를 우선 선정된 뒤 다음달 5일과 6일 연휴 기간에 우치동물원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름을 아기물범의 공식 이름으로 7일 확정·발표한다.

공모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이름 후보로 선정된 3인에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홍보물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치공원 동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지방소멸위기 극복 고흥 6월 보성·신안 10월 착공...210호 공급

전남도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진도에서 첫삽을 떴다.

전남도는 24일 진도를 남동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김태준 전남도의회 의장, 김희수 진도군수,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비롯해 진도 지역 청년·신혼부부 대표, 그리고 많은 진도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을 열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와 청년(전용면적 60㎡ 이하)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혁신적 주거 지원 정책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기공식으로 첫발을 내디딘 진도 전남형 만원주택은 3442㎡부지에 15층 2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 60세대(청년 30세대·신혼부부 30세대)에 공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80억원 중 전남도가 50세대 공급분 150억원을 진도군이 10세대 공급분 3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의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여주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도사는 기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이라는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과 꿈을 마음껏 키우는 아늑하고 쾌적한 보금자리가 튼튼하게 잘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진도를 남동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주요 내빈들과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을 축하하는 시삽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진도를 남동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주요 내빈들과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을 축하하는 시삽을 하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기공식 2025. 4. (목)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기공식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기공식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기공식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기공식

광주시, 유망 창업기업 5곳 ‘유니콘’ 키운다

G-유니콘 경진대회 26개사 경쟁...최종 5개사 선정 사업화자금 최대 2억·해외시장 진출·투자유치 지원

광주시가 지역 유망 창업기업 5개사를 선정해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오후 빛고을창업스테이션 2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우수한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 확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로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지점·연구소기업 등을 두고 있는 기업 중 주주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기업이다.

광주시는 이날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기업 26개사 중 혁신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창업기업 5개사를 최종 확정했다. 앞

서 심층 심사(서류·현장)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경진대회 참여기업 26개사를 선정했고, 이후 경진대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시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G-유니콘 육성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G-유니콘 육성 기업은 아이메디텍,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바이옴, 에스케이이, 파인트코리아 등 5개사다.

대상을 수상한 ‘아이메디텍’은 중재시술용 나노섬유 지지체와 제조장치를 개발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슬에이아이코리아’는 생체형 AI 개발·운영을 위해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바이옴’은 대사 이상·비만 솔루션 제공을 위해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국내외 전시회 참가, 투자 유치, 대기업과 개방형혁신전략(오픈노베이션)을 지원해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을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억원, 최우수상은 1억5000만원, 우수상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 지원금 1개년으로 한정했던 글로벌 POC(기술검증)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기업별 희망국가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동·서부권 상의 “현안 대선 공약 반영을”

철강·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초광역 교통망 등

전남 동·서부권 상공회의소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상의는 24일 순천에 있는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 발전 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3개 상의는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광양제철소·나로우주센터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심각한 불황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총격까지 더해져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천황경·고부가·인공지능(AI) 산업으로 재편을 위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상의들은 요청했다.

여수와 광양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CCUS) 클러스터 구축, 순천·광양 일원 120만평 규모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을 요구했다.

상의들은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 우주센터, 순천 원도심과 국가 정원 ‘K-디즈니’ 조성과 함께 여수공항을 남해안권 항공 교통 중심지로 육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목표상도 이날 전남 서부권 핵심 현안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목표상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반적인 지방소멸의 흐름속에서 전남서부권은 1차산업 중심의 고착화된 산업구조와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 정주여건의 한계로 지역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일자리·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최소한의 발전을 위한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서남권이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광양=귀권기 기자 ikkjin@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자치분권 강화·지역신문 육성 등 공약 반영해야”

대선협, 6·3 대선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대선협)는 24일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시장단 정기회의를 갖고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신문 육성 등의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선협은 이날 건의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비롯해, 과감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 제시해 주도록 요구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역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육성 법제와 정책지원 강화를 공약에 담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선협은 이날 회의에서 6.3 조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윤-오 프라인으로 공동 보도기도 했으며, 지역신문발전지원 법제 및 지원정책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4일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신문 육성 등의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개선을 지난 3월 출범한 지역신문발전포럼(위원장 김동규)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선협은 이날 신임 집행부 인선을 통해 김중석 무등일보 사장과 한인섭 중부매일 사장을 부회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고영진 부회장(경남일보 회장)은 유임됐다.

또 신임 이사로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손인라 영남일보 사장, 김경남 전남매일 사장, 박신용 충청투데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 사무총장 경민현(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선협 공동취재단

앞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회의장을 방문해 진주 k-기업가정신을 소개하고 진주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임용일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 최윤재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전북도민일보 신홍균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사무총장 경민현(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선협 공동취재단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눈길’

12~3월 2만 8000여 취약층에 33억6000만원 지원

물 한 방울, 바람 한 줄기에도 유난히 매서웠던 지난 겨울. 전남 곳곳의 작은 마을과 골목길에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히는 ‘복지기동대’가 있었다. 보일러 하나 없이 전기장판에 의지하던 다문화 가정,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못한 홀몸 어르신 곁에는 늘 이들이 있었다. 전남도가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이 추운 계절 속 이웃들에게 따뜻한 베풀음이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도내 2만 7731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긴급복지 지원을 펼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업비도 민간지원 연계를 포함해 총 33억7000만원에 달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총출한 온정의 안전망을 제공했다.

복지기동대의 손길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함평군 나산면에서는 보일러 없이 지내던 9인 다문화가정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 중문물

달아 찬 바람을 막아줬다. 장흥군에서는 치매를 앓는 독거노인이 여름철 이후 보일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냈던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수리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매일 가동대원이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돌봄을 이어가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집중지원에서 독거노인이 1만 6582가구(5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 부부가구 2485가구, 장애인 가구 2113가구, 중·장년 1인 가구 2107가구, 한부모 가정 1455가구 순이었다. 특히, 기존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반 위기가구 3494가구(12.6%)도 추가 발굴해 지원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화재 예방 점검이 1만 6902가구(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계비·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5910가구(21.3%), 보일러 수리와 온열기기 지원 등 난방시설 지원 3237가구(11.7%)로 나타났다.

이훈기 기자 gnnews@gwangnam.co.kr